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렘바이블 대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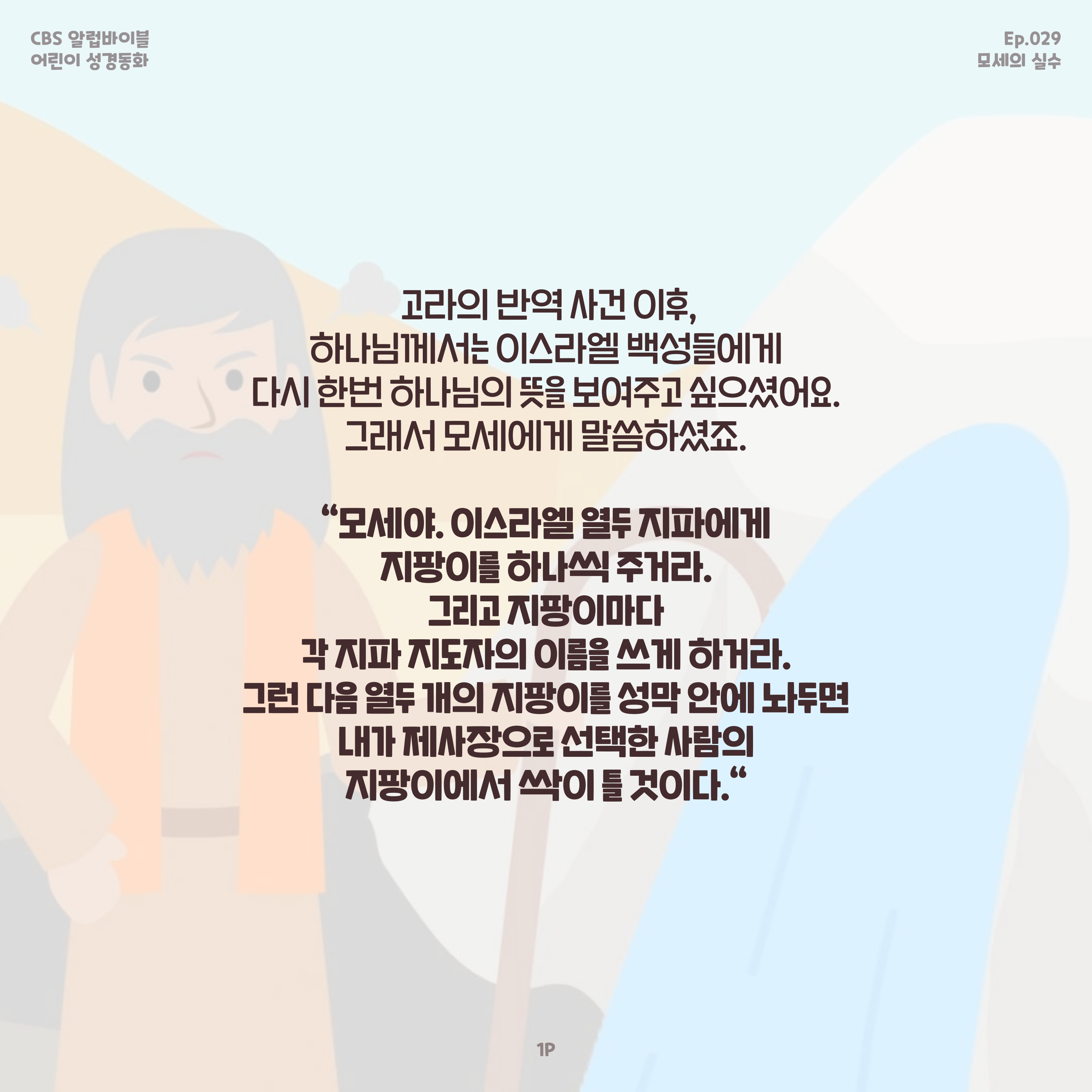
Ep.029

모세의

실수

(민수기 17장~21:9)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주거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쓰게 하거라.
그런 다음 열두 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놔두면
내가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틀 것이다.”**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싹이 튼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지팡이마다 이름을 적었어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형 아론의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 다음 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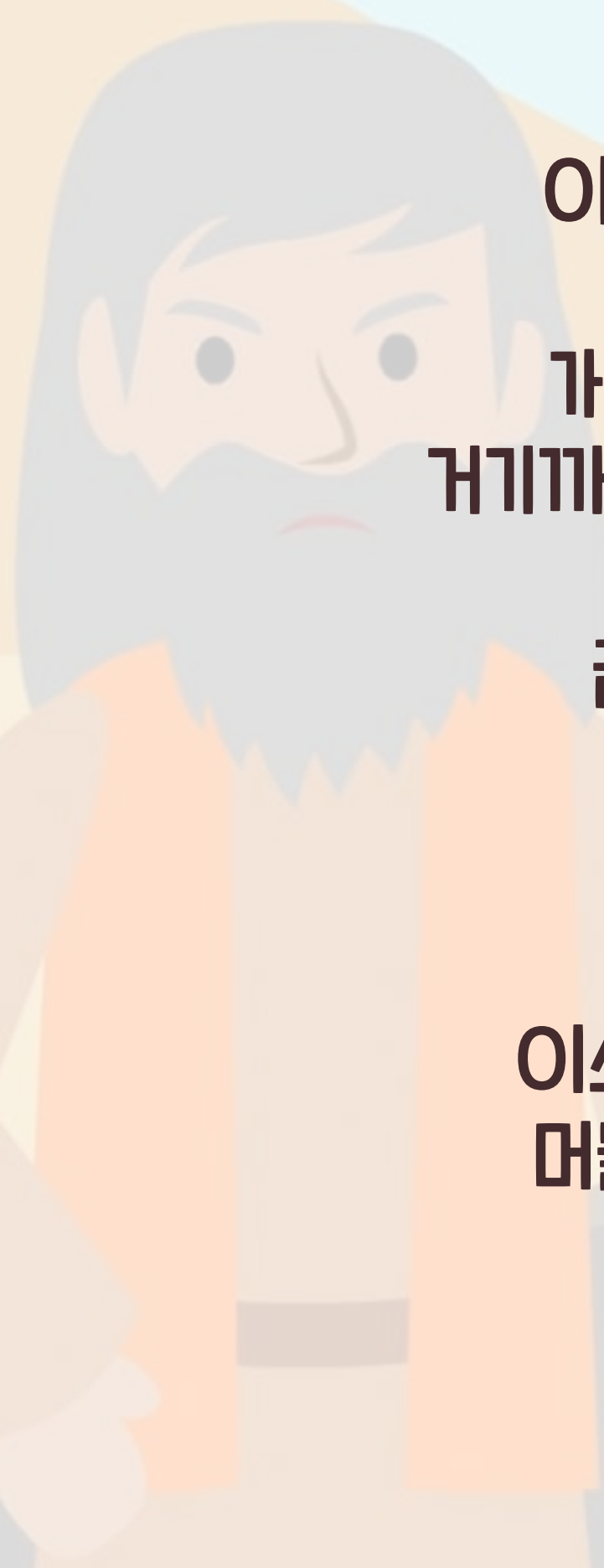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하나의 지팡이에 싹이 돌아 있었어요!
바로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였죠!

지팡이에 돋은 싹은 자라서 꽃을 피우더니
심지어는 먹음직스러운 아몬드 열매를 맺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 맞았구만!”**

**“그러게 말이요.
다신, 눈곱만큼도 의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론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을 뿐이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여정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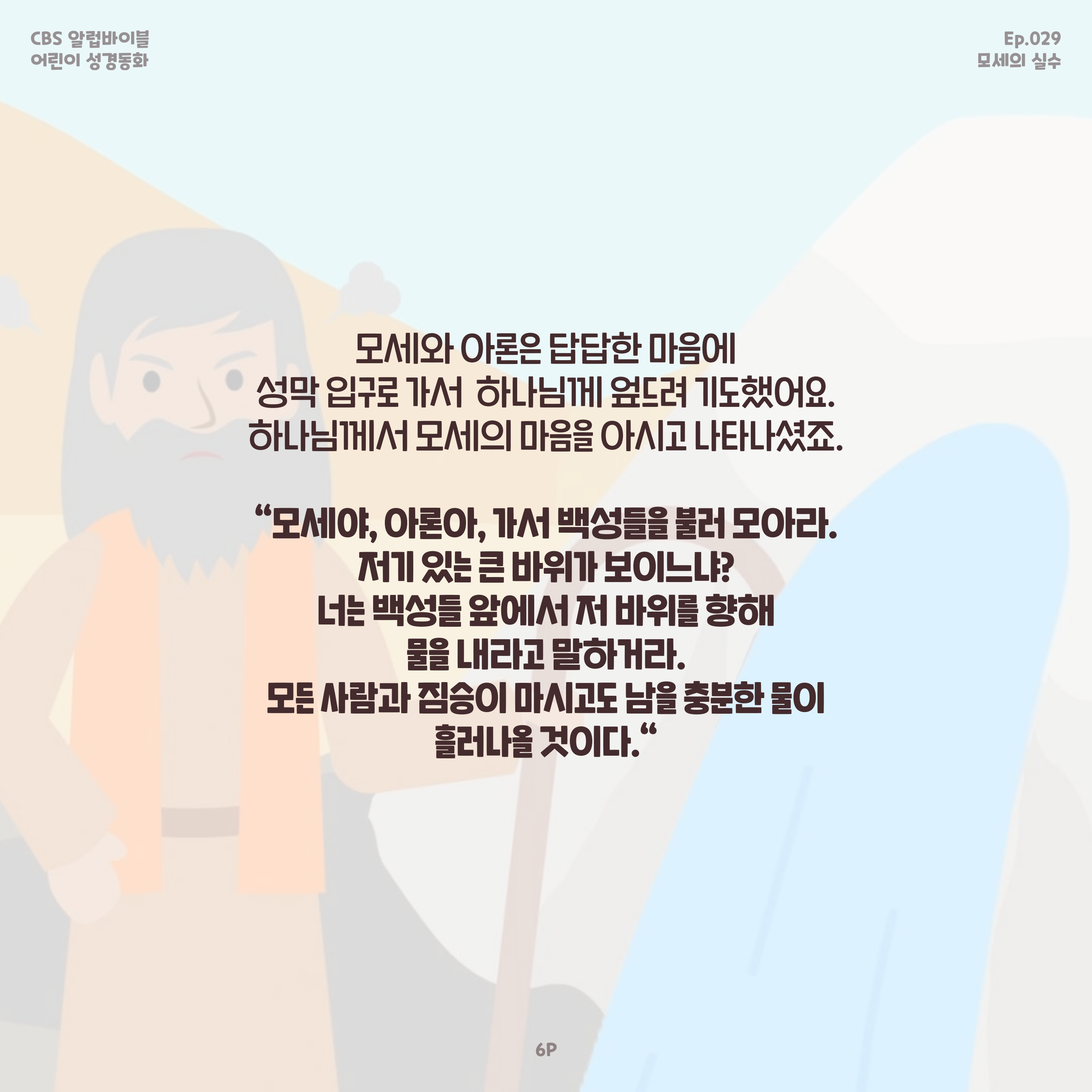
끝없이 펼쳐진 모래벌판을 걷느라
모두가 지치고 예민해졌죠.
그런, 모세도 마찬가지로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지방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몇 번이나 실수를 반복해 놓고도
정작 목이 마르자 백성들은 또 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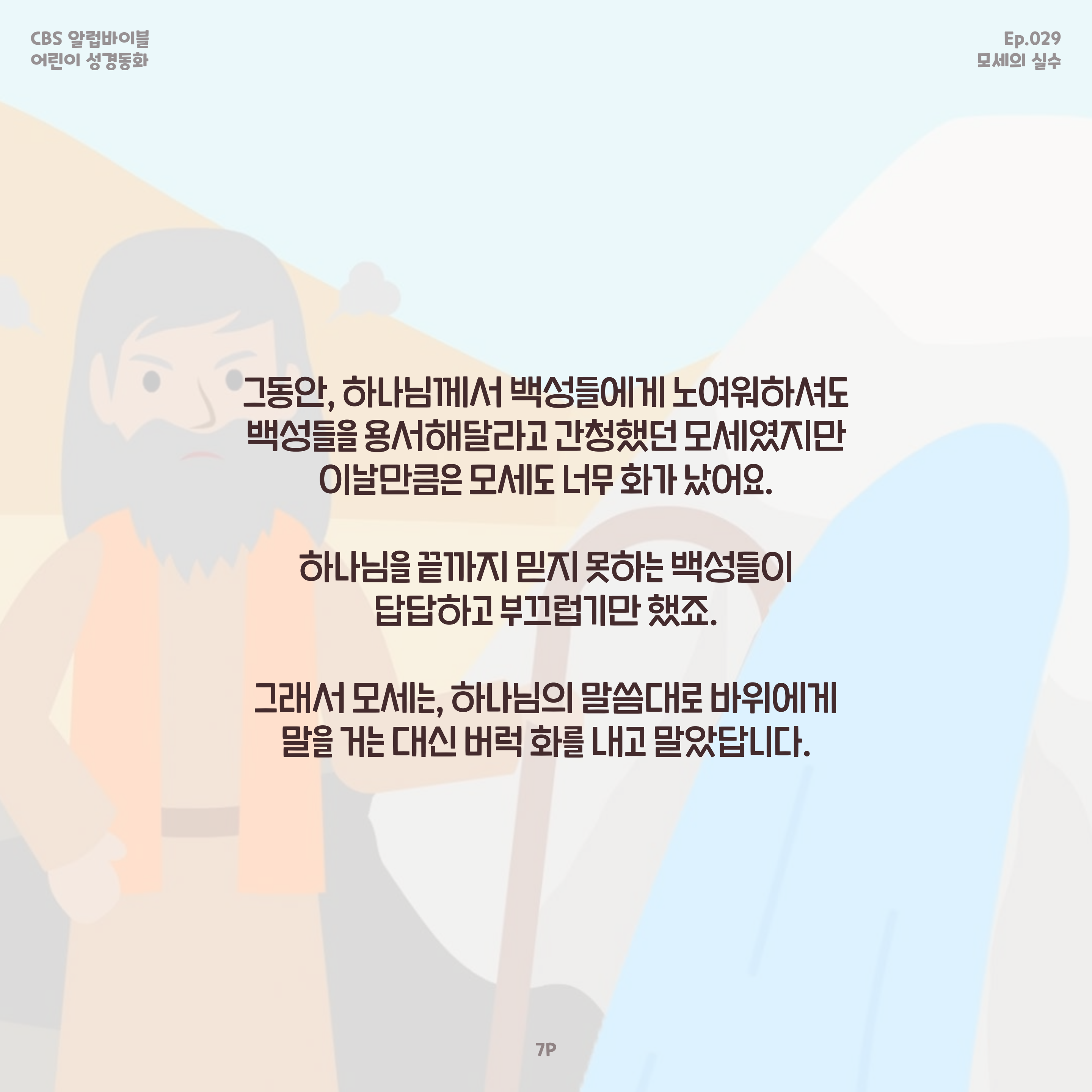
“모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건가요?”

“그래요,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여기서 대체 뭘 먹습니까!
여긴 씨 뿌릴 장소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 열매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실 물도요!”



모세와 아론은 답답한 마음에
성막 입구로 가서 하나님께 율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셨죠.

**“모세야, 아론아, 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저기 있는 큰 바위가 보이느냐?
너는 백성들 앞에서 저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거라.
모든 사람과 짐승이 마시고도 남을 충분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여워하셔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모세였지만
이날만큼은 모세도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답답하고 부끄럽기만 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말을 거는 대신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당신들!
그래,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면 되겠소?
그땐 정말로 만족하겠단 말이요!”**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바위를 지팡이로
세게 내리쳤어요.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양의 물이
쿨쿨쿨 흘러나왔죠.

그렇게 백성들은 허겁지겁 갈증을
해소했지만,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높이는 대신
본인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죠.

**“모세, 아론, 너희는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모세.

항상 하나님을 따르던 모세였지만
그만 마음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백성들을 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기도 했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기도 했어요.**

**“모세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엉엉엉.
제발 이 뱀들을 좀 없애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엉엉엉.”**

늘 그렇듯,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를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뜻을 여쭙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구리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잘못과 반성을 거듭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 근처까지 다다랐어요.

이제 눈앞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만 지나면
푸른 풀밭과 아름다운 골짜기가 어우러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 주변에 위치한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과연 모압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줄까요?